

# 16세기 조선 유교사회와 竹川(朴光前)의 선비정신

윤 사 순\*

## 目 次

1. 인간상의 문제
2. 유교의 理想人과 선비
3. 조선전기 선비정신의 형성과 구현
4. 16세기에 산 죽천의 사고와 행동
5. 죽천 선비정신의 위상

## 1. 인간상의 문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한다. 인간에게 주체적인 자아의식 또는 자기의지가 있으므로, 인간상의 형성이 자기의지로 되는 측면이 있음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環境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상은 자기의지와 함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환경에 따라 구현되는 자기의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발견되고 분별되는 인간상의 다양성은 곧 이렇게 이루어진 예증들인 셈이다.

환경으로서는 먼저 自然環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인간의 지능에 의하여 발달하는 科學·技術이 그 핵심의 위치에 있다. 과학 기술이 이른 ‘자연의 이용·개발’의 발달에 따라 생활양상이 달라지고 인간상마저 달라진다. 그것은 원시인과 현대인의 상이로 확인된다.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환경으로 또 꼽아야 할 것은 인간들이 이루는 社會環境이다. 이 경우는 특히 政治 經濟의 여건을 이루는 이념이 그 핵심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理想社會를 지향하여 고안된 理念의 창출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다. 그 이념의 창출에 관여하는 것이 사상이다. 사상의 변이에 따라 갖가지 인간상들이 형성됨은 각종 종교 철학 등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발견된다.

우리 민족도 다양하고 유구한 종교 철학 사상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만큼, 역사상 우리 나름으로 추구한 인간상도 한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儒教 佛敎 道敎에서 추구한 인간상들이 그러한 실례이다.

儒教(또는 儒學)의 경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언급하는 인간상은 여러 가지이다. 이 고찰의 주제에 드는 '선비(士)'는 유교의 다양한 인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유교 인간상의 하나인 선비마저 원초유교와 성리학에서 형성한 것 사이에는 같은 점만 있지 않다. 중국과 한국의 유교에서도 선비관과 그 실상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학자에 따라서도 선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면서, 여기에서는 주로 16세기 선비관과 당시 선비 중의 하나로 꼽히는 竹川 朴光前의 경우를 중심으로 '선비의 人間像'을 알아볼까 한다. 특히 그의 사상과 행위에 대한 살핌 속에서, 그가 과연 선비의 조건을 갖추었었는지, 선비였다면 어떤 유형의 선비에 속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유형의 선비상이 남긴 영향까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유교의 理想人과 선비

신채호의 견해를 따르면 선비의 어원은 수두교(단군교) 또는 선교의 무리를 가리키는 '선배'에 있다고 한다.<sup>1)</sup> 여기서는 신채호의 이론이 좀더

1) 논자, 「신채호의 고유사상관」, 『신실학사상론』, 예문서원, 1996.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길 기대하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것을 유교의 인간상으로만 살피겠다.

선비를 ‘士’의 번역으로만 보면, 유교에서 상정한 理想人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상인으로 상정된 점에서, 이것은 ‘君子’, ‘賢人’, ‘仁人’과 견줄만하다. 어느 모로나 결함 없이 神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성을 갖춘 이상인이 ‘聖人’이라면, 이는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로 흠이 없는 인간이다. 이론상으로는 비록 다 같이 노력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이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聖人の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무망에 가까운데 비하여, 선비는 수양과 학문과 실천을 통하여 성취 가능한 인간상이다.

학자에 따라 선비가 지식을 남보다 더 소유하였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 뜻을 ‘讀書人’으로 풀이하는 것을 본다. 지식의 축적이 뛰어나 태학의 교수지로 되었을 때 ‘博士’라고 이름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선비를 독서인이라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인간상은 한낱 ‘書生’과는 구별된다. 선비의 조건은 지식 못지 않게 원만한 인격의 德性을 소유함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선비는 君子와 짝이 되어 ‘士君子’라는 어휘를 이룬다.

유교계에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지배층이지 피지배층이 아니다. 지식을 소유한 그 지배층의 독서인은 노동을 천시하여 피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선비는 자연히 후진을 교육하거나 벼슬길로 나아가게 마련이었다. 선비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벼슬아치이거나 적어도 그 후보 자격의 인간이었다. 이런 점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士大夫’이다. 반면 벼슬을 하지 않고 야인의 생활을 하는 경우 선비는 ‘處士’로 불린다.

이상은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선비의 일반적 인간상이다. 선비의 보다 더 근본적인 특징은 孔子 孟자의 本源儒敎에게서 찾아지는 것이다. 공자는 일찍이 선비를 규정하여 “도에 뜻을 둔 사람”(士志於道)<sup>2)</sup>이라 하였다. 이러한 선비 중에도 뜻이 곧고 굳은 사람을 그는 ‘志士’라고 일컬었다.

2) 『論語』, 里仁篇,

동시에 그 지사를 그의 핵심사상인 ‘인간애’(仁 곧 愛人)를 실천하는 ‘仁人’과 병칭하였다. 그런 정도로 그는 지사의 위상을 높은 자리에 놓았다.

그 이유는 공자의 다음 연구에서 밝혀진다. “志士나 仁人は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인을 해치지 않고(無求生而害仁), 오히려 殺身의 태도로 인을 성취(成仁)한다.”<sup>3)</sup> 이는 지사의 행동이 일반인의 행동과 반대임을 가리킨다. 일반인이 이기적인 나머지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해치기까지 하는데 반해, 지사는 오히려 이타적인 태도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간애를 구현한다. 따라서 지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맹자는 공자의 선비관을 일단 계승하면서, 지사를 인인과 변별하는 해석을 내렸다. 그는 “선비란 어떤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뜻을 높인다(尙志)”고 하였다. 이어 “뜻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仁義일 뿐이라”고 하였다.<sup>4)</sup> 그는 선비가 높이는 뜻의 내용을 ‘仁과 義’로 풀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되, 義라고 할 옳은 성향의 행위만 해야 함을 의미한다. 역사에서 발견되는 義士·烈士·學士의 규정이 이 해석을 따른 용례이다.

하지만 이타의 경우에는 층차가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양보하는 것도 해당되고, 가정이나 집단을 위한 것도 해당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선비의 이타 범위에 충분치 않다. 人類 범위로 확대된 公共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犧牲을 감수하는 정도라야 충분하다. 그 이유는 이 정도로 人間愛를 실천하는 것이 공자가 仁사상으로도 모한 ‘최고의 理想社會’를 이루는 길이라는 데에 있다. 유교에서는 그러한 최고의 이상사회를 ‘大同社會’라고 한다.<sup>5)</sup> 그것은 세계 전체를 公의 기준으로 삼아, 화목하고 윤리와 복지시설이 충족된 사회이다.<sup>6)</sup> 지사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회를 이루려는 정신으로 충만된 인간이다. 유교의 참

3) 『論語』, 衛靈公篇

4) 『孟子』, 盡心, 上

5) 『禮記』, 禮運篇

6) 앞과 같음.

다음 '선비정신'은 이러한 사고를 앞세우고 이루어진 것이다.

### 3. 조선전기 선비정신의 형성과 구원

#### 1) 성리학에서 본 선비의 조건

조선시대는 고려 말에 도입된 程朱系 性理學이 統治원리, 官學로 이용되어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던 시대였다. 성리학의 특징은 禮와 道德을 종래의 유교보다 더 강화한 것이고, 같은 이름의 왕도정치일지라도 위민민본 성격을 더 강화한 政治를 지향하며, 나아가 예나 도덕 및 이상정치 의 형이상학적 근거까지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또 불교의 禪에 비길 修養을 철저히 하여,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참된 인간 자신을 회복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爲己之學'임을 자처하던 유학이다.

이러한 성리학 지배하의 선비는 性理說 등의 지식습득과 아울러, 수양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道德 君子'로 되어야 선비로 인정을 받았다. 조선시대에 순수한 성리학 정신이 투철한 선비일수록 官吏로 되는 것보다 무관의 야인인 '處士'로 되는 길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평가한 것도 성리학이 지닌 爲己의 성향이 낳은 현상이다.

관리로 된 경우에는 이상정치의 시행을 위한 奉公정신이 투철하여야 한다. 그 봉공을 선비의 필수요건으로 상정하게된 데에는 "선비가 나라의 으뜸 되는 기운"(士者國之元氣)<sup>7)</sup>이라는 선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잘 발달된 관료사회였던 조선에서, 그 봉공은 무엇보다도 '관리의 도리'(吏道)를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관념이 강화된 뒤로, 비록 處士일지라도 선비다운 선비로 인정받으려면 '私人'의 성격보다 '公

7) 이 말은 특히 趙光祖, 李滉, 奇大升, 李珣 등 士林派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본다.

人'의 성격을 그 본질처럼 생각하게 된다.

公私의 구분의식은 관계에서 청백리를 낳는 정신적 토대이다. 이것은 성리학의 義理구현 의식과 서로 통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리학이 또한 '義理之學'이라고도 불리는 유학임을 상기해야 한다. 그 義理는 '私人의 규범과 公人の 규범' 양면에 다 적용된다. 수기에 의한 君子다움은 앞의 규범에 맞게 행위하는 선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청렴·위민·충성의 마음가짐에 기초한 清白吏나 忠臣다움은 뒤의 규범에 맞게 행위한 선비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의리 중요시 성향은 원천적으로 공자에게서 비롯된 名分의식에 연원을 둔 것이다. 공자의 正名思想 또는 春秋大義사상이 성리학에서 포괄적 또는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義理精神이기도 하다. 조선전기에도 형성되거나 구현된 선비정신은 모두 이러한 성리학의 특성이 구체화된 것들임을 아래에서 확인하게 된다.

## 2) 선비정신의 역사적 형성

정주성리학이 고려말엽에 도입되었으므로 그 학문에 기초한 義理精神의 역사적 구현 또한 그 이전일 수는 없다. 실제로 고려말부터 그러한 예가 찾아진다. 고려 말의 '三隱'으로 일컬어지는 圃隱 鄭夢周(1337-1392), 牧隱 李穡(1328-1396), 冶隱 吉再(1353-1419)의 행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역성혁명을 감행하던 이성계와 그 일파의 온갖 회유에도 이들은 끝까지 굴복치 않아, 마침내 처참하게 암살 당하거나, 무참히 독살을 당하거나, 혹은 산림 속에서 고독한 학자로 일생을 마쳤다. 이들의 이러한 말년의 불행은 오로지 大義라는 '不事二君'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로 택한 것이다. 그들의 '節義지킴'은 조선 초의 '杜門洞 七十二人'의 죽음으로 미루어, 유학계를 크게 감동시킨 의리실천 태도였을 것이다.

조선 성리학사에서는 사실 그들을 節義를 지킨 최초의 선비로 대우한다. 그러한 대우는 절의로 표현되는 義理가 지닌 유교적 가치의 비중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절의의 가치 비중이 높은 것은 곧 그들이 이룬 선비다움의 높이를 가리키는 의의 다름이 아니다. 이것은 16세기 趙光祖의 건의로 鄭夢周가 재평가되고, 뒤 이어 文廟에 配享까지 되는 영광을 안은 사실로 입증된다.

조선조가 토대를 확고히 굳힌 뒤에 선비들이 보인 ‘의리 지킴’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한 死六臣과 生六臣 등의 행위가 선두에 위치한다. 그 왕위찬탈 행위는 기존의 왕(단종)을 신하가 제거·사살한 不忠이고, 長子 위주의 王位 승계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세종과 문종 등의 뜻을 배반한 不義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그것도 춘추대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에 항거하는 것이 곧 절의로 표현될 義理지킴이다. 불의의 교정인 ‘수양·세조의 축출’이 전 왕의 신하에게는 忠臣의 名分을 갖추는 ‘당연한 의리’였다. 그들에 적용된 ‘節義派’의 명칭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내려진 것이다. 조광조가 박팽년 등 사육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대우인 증직을 건의 한 것도 그들이 ‘의리’의 실천을 통하여 조선조 선비정신의 형성과 구현에 바친 공헌이 크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士禍의 이름으로 선비들이 犧牲된 이면에도 춘추대의에 해당하는 의리구현의 의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최초의 사회라는 갑자사회는 연산의 모친살해에 대한 것인 만큼 예외에 속하는 셈이다. 그러나 역시 수양의 왕위찬탈을 간접으로 비방하는 의미의 ‘弔義帝文’을 金宗直(佔畢齋 : 1431-1456)이 지어 사초에 넣음으로써 야기된 戊午士禍(연산 4년, 1498)도 節義派 정신의 연장임은 물론이다. 그 글의 장본인이 부관참시 당하고, 제자인 鄭汝昌(一蠹 : 1450-1504), 金駟孫(濯纓 : 1464-1498)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金宏弼(寒暄堂 : 1454-1604) 등이 귀양살이를 하게 된 이 사건은 의리구현 정신을 선비의 임무로 인식하게 하고 집단적 선비세계의 형성을 촉진시킨 계기였다. 이로 해서 의리를 행하던 당시 선비들은 ‘士林’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화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사람의 용법은 마침 이들이 김종직의 부친인 金叔滋(江湖散人 :

1389-1456)를 넘어 고려적 절의를 지키던 吉再에게 학통이 다 있었던 사실로 해서 '탈속적인 특화'의 어감을 더 지니게 되었다.

사화기로 지칭되는 15-16세기에 선비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희생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러하였던 것만도 아니다. 선비들의 의리고수 투쟁이 실패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실패의 경우가 많았던 데서 그러한 표현이 적절하게 여겨질 뿐이다. 성공한 사례가 곧 中宗反正, 즉 극도로 방탕하여 정치를 파탄시키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던 연산을 축출한 사건이다. 그것은 왕의 임무로서의 의리를 저버린 不義에 대한 항거 조치로서 '나라를 떠받치는 선비'의 의리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8)</sup>

16세기 선비들이 의리 수행에 가장 크게 실패·저해 당한 사례가 '己卯士禍'이다. 원래 反正이라는 의미는 부정한 것을 '바르게 되돌려 놓음'을 가리킨다. 당시 반정의 정신은 이미 언급한 대로 파탄으로 치달던 정치를 정상화하려던 정신이다. 그 정신의 구현을 곧 선비의 義理具現으로 해독하고, 의리 실천에 누구보다도 앞장 선 인물이 趙光祖(靜庵, 1482-1519)였다. 至治라는 표현의 이상정치 구현을 목표로 걸고 시행한 그의 개혁정책, 즉 維新策은<sup>9)</sup> 이런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그 至治를 지향한 개혁책이 '愛民, 爲民, 利民'의 내실을 거두려는 성향을 지녔던 만큼 그것은 관리의 의리인 '奉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에 틀림없었다. 그의 선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폐정개혁은 중종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으로 시행된 데다가, 특히 기존 훈구세력의 功臣조질(감축) 문제까지 거론하는

8) 연산은 갑자사화를 일으키던 (즉위 10년) 무렵부터 방종 방탕이 극심하여졌다. 정치제도와 그 기구의 폐기를 통해 정치를 파탄으로 몰아 갔다. 그는 왕에게 특히 유교적 이상정치를 이론적으로 해명하여주는 經筵을 없애고, 학문의 본산인 成均館을 遊宴所로 하고, 언문의 교수와 학습을 금하여 국문학조차 침체에 빠뜨렸다. 막판에는 왕에게 직간할 임무를 띤 기구인 司諫院을 없앴고, 經筵의 進讀官의 직종도 없앴으며, 정치를 총괄하면서 왕의 잘못에 직간을 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 弘文館 大提學의 직마저 없앴다.

9) 그는 '威與維新'을 표방하였다. 이 표현은 물론 그 자신이 창안한 용어가 아니고 『詩經』, 『書經』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내용이었다. 이에 훈구세력은 그를 음해하여 정계에서 축출·사형 당하게 하고, 그를 따르던 신진 소장층마저 살해하거나 유배시키게 하였다.

기묘사화가 사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도 爲民을 기준으로 한 奉公의 실천을 위해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하던 ‘선비 정신’의 투철함에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화를 입은 선비는 조광조 외에도 많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형조판서 金淨, 승지 尹自任·朴世薰·朴熏, 부제학 金絀, 대사성 金滉, 응교 奇遵이 목숨까지 잃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이야말로 조광조와 함께 행한 의리실천으로 해서 선비로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긴 인물들이다. 이들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 사화로 인하여, 조선사회는 선비다움의 본모기를 더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선비정신의 형성과 그 공고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선비라면 조광조 등과 같이 私慾을 버리고 오로지 양심에 입각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정신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수양을 통하여 德을 쌓거나, 왕조의 변전이나 왕위 계승에 따른 의리를 행하는 것도 선비의 임무이지만, 爲民 利民의 이상정치(王道政治)를 행하게 하는 데서도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곧 선비라는 관념이 이를 계기로 더욱 굳어졌다. 이상이 죽천의 활동 전시기에 이루어진 선비정신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성격이다.<sup>10)</sup>

주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한가지 부연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학계에서 규정하여 사용하는 기존의 ‘사림파(士林派)’가 담지한 의미 문제이다. 사학계에서는 이상의 사학기 피해자들을 가리켜 사림파 특히 ‘전기사림파’라 한다. 그리고 이들 뒤의 李彦迪(晦齋 : 1491-1553), 李滉(退溪 : 1501-1570), 李珥(栗谷 : 1536-1584) 등은 ‘후기사림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士林이라는 용어로 선비를 집단화하여 파악하는 경향은 그 전부터 관습화된

10) 기묘사화가 야기된 원인으로는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이 꼽히지만, 이 밖에도 간접적인 면 素因도 있었음을 부언해야겠다. 그 면 소인은 조정의 분위기가 종종 이 즉위하면서 폐출하였던 愼氏復妣문제를 놓고, 훈구·권신들과 신진·소장층이 대립 불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것인 만큼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사학계의 사림과 용법은 너무 전기사림 파에 치중하면서, 그 내용을 무오·기묘사회 때의 인물, 따라서 주로 국지적 인물들로 한정하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그들 외에도 당시 다른 선비들도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 사학계의 사림과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논자의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는 그 시기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들 수 있는 데에 있다. 즉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호남에서 많이 활약한 朴祥(訥齋 : 1474-1530)과 그 문인인 林億齡(石川 : 1496-1568), 鄭萬鍾(棗溪 : ?)이 있었고, 광양 출신으로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동북현에 유배되었던 崔山斗(新齋 : 1483-1536)가 있었다. 金淨(冲菴 : 1486-1521)이 충청도 출신임도 고려해야 하며, 한양에 살던 조광조의 문하에서는 成守琛(聽訟 : 1493-1564), 白仁傑(休庵 : 1497-1579) 등이 나왔다. 16세기 후기의 학계를 대표하는 인물만 하더라도 개성의 徐敬德(花潭 : 1489-1546), 산청의 曹植(南冥 : 1501-1572), 양주의 鄭之雲(秋巒 : 1509-1561), 장성의 金麟厚(河西 : 1510-1560), 광주의 奇大升(高峰 : 1527-1372) 등이 있었다. 그런 만큼 앞서 분류한 사람과의 규정은 역사의 국면적 이해에나 적합하지, 전반적 이해에서는 그대로 원용되기에 부적절함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림계’를 상정하고 그 사림계의 정신인 16세기 ‘선비들의 정신’을 알아볼 것이다.

#### 4. 16세기에 산 죽천의 사고와 행동

##### 1) 죽천의 학문 형성

竹川 朴光前(자 顯哉, 시호 文康公, 본관 珍原)은 중종21년(1526)에 전남 寶城 兆陽里에서 성균 진사 而誼의 아들로 태어나, 72세 되던 해인 선조30년(1597)에 그 고장에서 서거한 16세기의 인물이다.<sup>11)</sup>

11) 그의 生涯와 人物 및 學問 등에 관한 것은 주로 『竹川集』에 있는 그의 「年譜」와

그는 5세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한학의 수업은 9세 때부터였다. 때마침 대사성을 지내던 선비 洪暹(忍齋 : 1504-1585)이 金安老의 모함으로 그 인근(五里 정도 되는) 興陽에 귀양 와 있었으므로 죽천은 그에게 가서 학문을 배웠다. 죽천은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 없이 나아가 배움에, 흥섬도 그 독실한 뜻을 가상히 여겨 가르침에 더욱 힘썼다고 한다. 흥섬이 부인에게 자신의 자녀처럼 죽천의 머리를 빗기고 세수를 시켜주게 하였다는 데서, 그가 얼마나 죽천을 총애하였는지 짐작된다.

11세 때는 우연히 監司가 그 군을 순시하는 길에 죽천의 소문을 듣고서 불러 시를 짓게 하자, 주저치 않고 운에 맞는 시를 지었다. 이에 그는 감사에게 “훗날 반드시 儒宗이 되리라”는 예언을 듣고 후대 받은 일도 있었다.

스승이던 흥섬이 3년 만에 귀양살이를 마치고 떠남에, 12세의 죽천에게 그의 부친은 과거를 의식하여 詞章을 하도록 권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뜻은 이미 성리학에 기울기 시작하였던지, 그 나이에 벌써 『性理大全』을 얻어, 틈나는 대로 읽으며 이해코자 힘썼다. 그런 노력으로 이듬해(13세)부터는 文理가 통하여 스승이나 벗의 도움 없이도 『中庸』을 읽고 깊이 깨우치는 것이 있었다. 『중용』이 성리학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禮記』에서 독립되어 ‘四書’ 중에 들어갔을 정도로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책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무렵 그의 학문취향이 성리학에 쏠리고 있었음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20세 때에는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한 뜻에서 任百英과 과거 길에 나섰다가 도중에서 林億齡(石川 : ?-1568)을 만났다. 임억령은 죽천의 기품이 특이함에는 매우 호감을 가졌으나, 말씨(辭氣)가 좀 경솔함에 “군자의

---

「行狀」을 참고로, 각주를 달지 않고 기술하겠다. 그의 생애 등의 서술에서 출처를 명기하지 않는 것은 이 「연보」와 「행장」을 되풀이하여 일일이 밝히는 것이 너무 번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죽천집』은 민족문화추진회의 ‘標點 影印, 韓國文集叢刊’ 본을 이용한다.

몸가짐은 마땅히 중후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죽천은 곧 굴복하고, 항상 스스로 생각을 억제하며 차별히 수양을 쌓아가면서 종신토록 그 충고를 藥石으로 삼았다.<sup>12)</sup>

이것은 그의 인품형성에서 문자에 의한 지식의 확장 이상으로 중요성을 지닌 경험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남출신의 임억령은 그의 동생 百齡이 척신 윤원형의 당인이 되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자괴감에서 벼슬을 사퇴하였다. 그 후 백령이 原從功臣의 녹권을 보내왔을 때는 분격하여 그것을 불태우고 고향에 은거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에게 德性형성의 교시를 받은 것은 죽천이 큰 ‘선비’로 성숙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명종 원년 22세의 죽천은 효행이 뛰어나고 윤원형과 대립되는 태도를 취하였던 梁應鼎(松川 : ?)에게서 학업을 익혔다. 그 때는 을사사화를 지내고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성리학을 기피하면서 글재주나 높이고 방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죽천만은 과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爲己의 學’인 성리학이 있음을 알고, 그 방면에 분발하여 그 조예가 정치하고 심오하여졌다. 31세가 되었을 때에는 韓胤明과 古義를 토론하면서 일년을 함께 연구하였다.

## 2) 그의 학문 본령

이듬해 32세에는 죽천(개울)가에 精舍를 짓고, ‘위기의 학’에 전심하였다. 문인 宣廷達이 와서 楚辭를 배우고자 한 것도 이 때(33세)이다. 34세의 죽천은 天鳳山 大原寺에서 학문을 가르쳤다. 그는 틈이 나면 臺를 건축하고 못을 파 수양할 곳으로 삼았다. 문인인 南彦記(宣峯)로 하여금 큰 글자로 ‘遇溪’라고 쓰게 하여 龜巖에 새기게 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 무렵부터 죽천은 학문을 배우는 처지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12) 『竹川集』, 「年譜」, 20세 조.

그는 배우러 오는 학도가 있으면 의관을 바로 하고서,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다만 記誦의 익힘만이 아니다. ‘爲己의 道’가 있으니, 만약 학문을 하고 싶다면, 어찌 위기의 본뜻을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가르쳤다.<sup>13)</sup>

이렇게 자신이 이미 교육자(훈장)의 입장에 있었음에도, 그는 41세 되던 해(1566년) 겨울, 학계의 원로이자 대가인 李滉(退溪 : 1501-1570)을 찾아가 문인의 예(執贄)를 하였다. 바로 그 해 2월에 大提學이 된 이황은 죽천을 한 번 보고는 매우 권장하고, 자신이 편집한 『朱子書節要』를 초록하면서 “입각할 근본 기초는 오로지 주자학(朱門)에 있다”고 하였다.<sup>14)</sup> 그가 죽천에게 자신의 수업을 받도록 허락하였음은 물론이다. 수업이 다 끝나자, 죽천은 부모 섬긴지 오래되었음을 들어 귀향할 것을 아뢰었더니, 이황은 『주자서절요』를 주면서 “늦게 좋은 벗을 만났다가 갑자기 이별하는데 어찌 말이 없겠느냐”면서 詩 다섯 장을 지어 주었다.<sup>15)</sup>

그 후에 이황이 보낸 답서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었다. “무릇 道는 넓고 넓으니 어디에서 착수해야겠습니까? 오직 聖賢의 遺訓이라야 곧 착수처이겠는데, 그 가운데 나아가 지극히 절요한 것을 구하자면 朱書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종신사업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이 道理를 항상 心目간에 있도록 하여 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면 아마도 인생의 일대 歡喜事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sup>16)</sup>라는 요지이다. 죽천은 이 이황의 교훈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드려 『주자서절요』에 잠심·강구하다가, 간혹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따로 「問目」으로 질문했고, 이황은 그에게 답을 보냈다.<sup>17)</sup> 이로써 죽천의 학문이 완전히 程朱性理學으로 본령을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3) 「年譜」, 37세조.

14) 「年譜」, 41세조.

15) 앞과 같음.

16) 앞과 같음.

17) 이들의 問答은 『竹川集』에 있음.

죽천이 『주자서절요』를 읽다가 이황과 질의 응답한 내용은 적지 않은 분량에 이른다. 이것은 일찍이 劉明鍾교수가 그의 논문<sup>18)</sup>에서 상세히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재론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그의 학문은 그가 노숙한 경지에 들었을(58세) 때, 그를 찾아와 학업을 익힌 安邦俊(隱峰 : 1537-1654)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음을 지적하여 둔다.

여기서 한가지 추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후 그의 思考와 행동이 정주성리학의 지식과 가치관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리라는 점이다. 그가 모친(崔氏)의 喪을 당하여(43세 때) 통곡과 기절을 반복하였다는 기록이 그의 정주성리학의 사고와 행동의 조그만 한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 하겠다.

### 3) 그의 관료 생활

죽천은 효행의 일환으로 과거를 지향하여, 29세 때 東堂初試에 응하여 수석을 차지한다. 그 후 위기지학인 성리학에 매료되어 과업을 멀리하다가, 42세에 다시 같은 시험을 보아 합격한다. 이듬해(선조 원년, 1568년)에 增廣會試의 進士시험에 응하여 차석을 한다.

45세에 柳希春(眉巖 : 1513-1577)이 죽천의 行義를 들어 조정에 천거한다. 죽천을 유희춘에게 천거한 사람은 그 곳의 진사 宣應直이었다. 천거한 근거는 “부모 섬김에 孝를 다 하고, 모친 상사에서 禮를 다 하였으며, 몸가짐에 본받을 것(法)이 있으며, 남을 가르침에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9)</sup> 그 천거로 해서 이듬해에 慶基殿 參奉이 그에게 주어졌고, 2년 뒤(48세)에는 獻陵參奉이 주어졌다. 50에 관직을 내놓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을 봉양하였다.

55세, 부친의 복을 마쳤을 때 東水庫 別坐가 주어졌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해 그는 王子師傅로 임명된다. 왕자의 사부란 고매한 인격과 포용력

18) 劉明鍾, 「竹川 朴光前의 生涯와 性理想」.

19) 「年譜」, 45세조.

있는 덕망 높은 수준의 학식이 없고서는 아니 되는 벼슬임을 감안하면, 이로써 그의 인물됨과 학문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58에 監察이 되었다가, 咸悅縣監이 된다. 62세 때 그에게 掌苑이 주어졌다가, 도중에 懷德縣監으로 된다. 64세 때는 灾傷御史인 禹俊民의 미움을 사 자리를 내어놓고 돌아왔다. 68세로 翊衛司 翊衛가 되지만 이것은 그 전 해(1592년)에 발발한 壬辰倭亂으로 인한 전시체제에서 내린 정부의 비상조치였다. 70에도 翊衛가 두 번 주어지고 新昌縣監도 주어지지만 노쇠를 이유로 취임치 않았다.

#### 4) 그의 官吏像

이와 같은 관직을 맡았던 죽천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公私를 매우 분명히 구별하여 행동하였다. 그는 9세부터 3년간 홍양에서 초학을 가르쳐준 洪暹이 정승이 되기도 하였지만,<sup>20)</sup> 자신이 벼슬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죽천이 현능참봉으로 된 때(48세)서야 비로소 찾아가 만난다. 그 죽천을 맞은 홍섬이 왜 이제야 왔느냐고 하니, 그 대답은 ‘정승을 찾는 것은 선비(儒士)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 집안에서는 노복 하나에게도 죄를 묻지 않는 溫柔한 태도를 지내는 그가 衙門에 들어서면 너무도 엄하여 衙中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친척들은 말하길, 그에게는 “家와 官에 두 길(道)이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sup>21)</sup>

죽천은 公私 분별의식이 투철하였을 뿐만 아니라, 公務의 처리에서는 是非·曲直의 판별이 예리하고 정확하였다. 그가 회덕현감으로 부임하여 처결한 訟事가 그 좋은 예이다. 그때 회덕에서는 노비로 인하여 어떤 宗親과 村民이 쟁송을 하였는데, 무려 11명의 현감을 거치면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의 전임자 역시 종친의 세력에 겁먹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여, 그 일은 자연히 죽천의 몫으로 되었다. 그는 문서를 열독하고

20) 홍섬은 선조9년(1576)에 左議政이 되었음.

21) 「年譜」 59세 조.

정상을 살핀 끝에 촌민에게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종친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사헌부에 제소하였다. 하지만 사헌부에서는 그 文案으로 보아 죽천의 판단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종친의 제소를 물리쳤다. 시비 곡직에 대한 그의 판별이 이와 같이 공정하고 정확하였다.<sup>22)</sup>

관리로서 그는 애민·위민의 吏道실천에 열의를 쏟았다. 현감을 할 때 그는 농민의 애로를 직접 파악하여 고충을 되도록 경감시켜 주었다. 능참봉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능의 守卒을 비롯하여 노약자까지 나와서 눈물로 전송하였을 만큼 愛民의 情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였다. 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바로 함열현감 직무수행 때의 사실이다. 당시 죽천은 벽에 “백성보기를 상쳐 입은 사람 같이 보라”는 뜻의 ‘視民如傷’이라는 네자를 써 붙여놓고, 현민을 위하는 시책을 펴는데 진력하였다.<sup>23)</sup>

관리였지만 교육자적 상을 지녔던 인물이 죽천이었다. 54세 때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뒤로, 그는 관리보다도 후진의 육성을 더 자신의 책무로 여겼다. 그에게는 찾아오는 학도(負笈者)들이 많아, 그는 어린 사람들을 보면 독서를 많이 권하였는데, 특히 『小學』을 먼저 읽도록 하였다.<sup>24)</sup> 『소학』이 16세기 사림계의 필독서처럼 중요시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 역시 당시 사림의 풍조와 보조를 같이 하였음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함열현감 때에도 직무를 마친 뒤에는 몸소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더불어 道義를 강론하였는데 그것을 듣는 자가 수 십 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끝으로 임진왜란 이후 翊衛 등을 받았다고 하고서 그것이 전시체제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였다. 그 전쟁기의 죽천의 활동을 아직 살피지 않았다. 이 살피지 않은 부분이 실은 관리로나 평민으로나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은 부분이다. 반드시 관리의 업적으로만 다를 성질이 아니므로 이제 자리를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22) 「年譜」, 62세 조

23) 「年譜」, 59세 조

24) 「年譜」, 54세 조



## 5) 그의 義軍활동

죽천이 임진왜란을 당한 것은 67세로 관계에서 떠난 지 4년째 되던 때이다. 그는 왜란을 평민의 신분으로 당하였던 것이다. 왜적은 침입한지 십여 일만에 서울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화를 예측할 수 없던 죽천은 진보현감 任啓英, 능성현감 金益福, 蘭谷 鄭佶 등과 상의하고, 격문을 지어 여러 고을에 보내어 정병 7백 여인을 모집하였다. 그 자신은 病으로 행동할 수 없어, 임계영을 義軍將으로 삼고, 문인 安邦俊을 보내 군무를 體察使 鄭澈과 의논토록 하였다. 문인 文緯世에게는 군수품을 주관토록 하고, 鄭思悌는 종사로 하는 한편, 큰아들 朴根孝를 참모로 하였다.<sup>25)</sup> 그들은 그 체제로 금산과 무주를 방어하는데 모두 크게 공을 세웠다.

왜적은 5년 뒤 丁酉年에 다시 침공하여 왔다. 죽천은 서울로 가려하였으나, 남원이 이미 적에게 함락되어 길이 막히었다. 그는 우선 급한대로 安邦俊과 天鳳山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생사가 조석에 달렸다. 이 때 생원 朴士吉이 숲 속에서 나와, “나라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앉아 죽기를 기다려서야 되겠는가! 마땅히 의군을 일으켜 죽음으로써 왕을 섬김이 옳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죽천에게 “웃어른으로서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 온지 오래되었으니 義軍將을 맡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죽천은 말하길, “난리가 나날이 위급한데다 병마져 날로 심하니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을 바에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적과 함께 살지는 않을 것을 맹세한다”하고 군병을 모집하며 군량을 모았다.<sup>26)</sup>

그 와중에 그는 먼저 부인(文氏)의 죽음을 母后山에서 맞았다. 죽천은 슬픔을 이기기 어려웠고 병은 날로 깊어갔다. 그러나 그의 忠情은 더욱 격렬하여 생사를 고려치 않게 되었다. 그는 박사길 등 여러 사람과 同福으로 들어가, 前判官 宋弘烈을 副將으로 하여 勇士들을 거느리고 적의 소굴을 습격하였다. 적은 불의의 기습에 당황하다가 절멸되었다.<sup>27)</sup> 이에

25) 「年譜」, 67세 조.

26) 「年譜」, 67세 조.

우리 군병의 기개가 점차로 진작되었다. 그러나 守令 가운데 산과 바다로 숨었던 자가 그 성공을 시기하여 마침내 그 기개를 꺾었다.

왜군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죽천은 당시 수령의 거짓보고를 들은 監司에게 불려가 詰問만 듣고 珍原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서 얼마 되지 않은 뒷날(1597년 丁酉 음 11월 18일) 그는 숨을 거두었다.

## 5. 죽천 선비정신의 위상

죽천이 타계함에, 10년 후 안방준과 鄭佶(蘭谷)을 비롯한 도내 사림은 그를 추모하여 그의 강학소였던 龍山에 서원을 세웠다.<sup>28)</sup> 정부는 광해군 2년(1610)에 그의 업적을 기려 그에게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參贊官」을 증직하였고, 한 세기 이상을 지낸 뒤에는<sup>29)</sup> 「文康」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그의 충성이 매우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죽천은 당대의 명사에 드는 홍섬과 양응정에게 학문을 익힌 것만으로도 ‘讀書人’ 범주의 教育者的 知識人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터에 그는 홀로 위기지학·성리학을 공부하다가, 41세의 장년기에는 당시 대표적 정주성리학자인 이황에게 제자의 예를 하고, 『주자서절요』 등을 탐독하며 질의 문답을 한 성리학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황의 高弟”이고, 그의 학문은 곧 “이황의 嫡傳”이라고 전하여진다.<sup>30)</sup> 그가 갖춘 이러한 점들은 그가 유교 가운데서도 성리학의 가치 구현에 충실한 16세기의 선비 대열에 들게 됨을 의미한다.

사회의 타과 함께 성리학이 지향한 爲己의 성향 때문에, 16세기의 선비는 곧 관리이거나 적어도 관리후보를 지칭하던 옛 선비의 모습과 풍조와

27) 앞과 같음.

28) 숙종31년(丁亥)에 賜額書院으로 됨.

29) 正祖5년(1781) 辛丑.

30) 『竹川集』, 권8, 「請謚疏」.

다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소학』과 「四書」와 「朱子書」들에 기초한 철저한 律身·修기과 學習을 통하여 德性과 知識을 기른 君子의 자질을 갖추고, 정치와 거리를 둔 ‘處士의 인간상’으로 살았거나, 같은 자질을 갖추고도 愛民·爲民의 奉公行에 목숨까지 바친 ‘士林派계통의 인간상’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죽천은 바로 뒤 인간상을 지닌 인물에 해당한다. 그가 『小學』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교육에 임한 사실은 그 자신이 『소학』의 중요성을 체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의 수양을 바탕으로 한 군자다운 덕성함양의 구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가 王子의 師傅로 임명받은 것은 그의 덕성뿐만 아니라 학문의 수준까지 가늠케 하는 것임을 논자는 이미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가 관리로서 보여준 公私의 엄격한 구별이라든가, 시비 곡직의 냉철한 판별, 두터운 愛民의 정에 의한 爲民 治績은 모두 봉공행의 시각으로도 사람과 계열에 들 수 있는 그의 선비다운 모습이다.

더욱이 죽천이 壬辰·丁酉 倭亂에서 보인 활약상은 사람과 계열에 들고도 남는 그 이상의 선비상이다. 왜란 때에 그가 병든 노구를 이끌고 국가와 生民을 구하는데 목숨까지 바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이 민족이라면 누구나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란을 당하여 義軍을 일으켜 적을 방어하고 퇴치하는데 진력한 그가 오히려 수령의 무고로 감사에게 힐문 당한 것은 李舜臣의 경우를 연상케 한다. 그에 있어서는 적과의 항쟁에서 탈진한 것보다 수령과 감사의 태도가 준 충격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킨 더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족의 침략에 대항하여 문관들이 붓을 던지고 義軍을 모집하여 義軍將으로서 전투를 대규모로 한 것은 역사상 전에 없던 일이다. 더욱이 그러한 것이 죽천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곳의 문관과 문사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16세기에 처음 보는 현상이다. 임진왜란이 닥치자, 광주 목사로 있던 權慄(1537-1599)은 군병을 모집하여 남원 등지를 누비면서 전투를 감행하였고, 金千鎰(1537-1593)은 나주에서 의군을 모집하여 일어

났으며, 趙憲(重峰 : 1544-1592)은 옥천에서 군병을 모집하여 청주에서 크게 전과를 올리고는 금산 전투에서 7백 의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조식의 문인인 郭再祐(1552-1617)가 天降紅衣將軍이라는 이름을 드 날렸던 때도 다른 때가 아니며, 성혼의 문인 金德齡(1567-1596)이 담양에서 의군을 일으켜 虎翼將軍의 명칭에 값한 것도 다 당시의 일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 곳의 여러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던 만큼, 그것은 마침내 선비상과 선비관을 이루는 '선비정신'에 대한 관념을 바꿔 놓게 되었다. 즉 국가 위난의 시기에는 선비 역시 武士만 못지 않은 항쟁의 정신으로 임한다는 관념이 생겨났던 것이다. 죽천은 이러한 관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선비의 전형에 해당한다. 왜란 때 의병장들이 있었던 까닭에, '나라의 으뜸 되는 기운'으로 규정된 선비정신은 武士라는 어휘에서 보듯이 武人の 정신과도 일맥 통하게 되었다.

더욱 유의해야 할 문제는 임진왜란 같은 외족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지킨다"고 할 때의 '國家觀'이 어떤 것인가에 있다. 그 점은 당시 작성·유포된 檄文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서 조금이나마 찾아진다. 한 예로 정유재란이 일어나 죽천이 문인 안방준을 데리고 천봉산으로 들어갔을 때, 생원 박사길(朴)이 숲 속에서 나와 의군을 모집하여 왜군과 싸울 것을 제안 하였던 것을 먼저 상기하자. 그 제안의 내용은 "나라의 사태가 극에 달하였는데, 신하된 자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마땅히 의군을 일으켜, 죽음으로써 '왕을 섬김'(王事)이 옳다"<sup>31)</sup>고 한 것이다. 여기 원문인 '王事'는 글자대로 하면 '제왕의 일', 또는 '왕실의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왕 섬김'이라 해야 옳은 번역이겠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 박사길의 사고로는 국란 타개는 곧 왕을 편안케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에 있어서는 '王이 곧 國家'인 셈이다. 사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당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31) “國家之事，至於此極，爲臣子者，豈可坐而待死，當倡義旅，以死王事可也”(『年譜』先生 72歲條)

그러나 죽천의 격문을 보면 왕에 관한 연구보다 ‘生民’, ‘生靈’으로 표현된 국민에 대한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이 점이 당시의 다른 선비들의 사고와 다른 점이다. 다음 글은 죽천이 작성한 격문의 일부이다. “국가의 사태가 매우 위태로워, 참으로 통곡할 만 하다. 이에 義士가 분발할 때이다. 생각하면 왜적이 서울에 침입하여, 장정들을 무찔러 죽이니, 슬프도다. ‘우리 生民’이 몸둘 곳이 어디이고, 집 삼을 곳이 어디인가? 영남이 이미 그렇게 된 자취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노라…; 어찌 國事に 죽지 않겠는가. 하물며 만일 요새를 차지하여 적의 세력을 막고 꺾는다면, 죽음에서 生命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이 그 기회이다. 치욕을 씻어내고 국가를 회복하는 것도 이 때이다. 우리 道 안에는 반드시 남은 장정과 흩어진 병졸이 있을 것이다. 만일 배운 선비가 소집하고 격려하며 협력하여 떨쳐 일어나 스스로 一軍을 형성하고서, 적의 동향을 살피며 요충을 고수하면, 위로 왕의 군대에 성원이 될 수 있고, 아래로는 한 지역의 ‘生靈’을 보호할 수 있다…;”<sup>32)</sup>라는 것이다.

당시로는 왕을 위하고 이른바 사직을 위하는 것을 어느 유학자나 충성으로 여긴 만큼, 죽천이라고 하여 예외에 들었다고 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글을 근거로 하는 한, 전란이 심하여 나라 전체가 화를 당하고 있는 때에 그가 관심을 쏟은 것은 누구보다도 ‘生民·生靈’이라는 인민을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그는 義軍募集의 의의를 궁극적으로 ‘人民의 保護와 安寧’에 두고 있던 사고의 소유자였다. 바로 그의 이런 사고는 신분적 봉건시대인 당시의 전근대적 사고로는 상당히 ‘進歩의 성격’을 띤 것이다. 죽천의 선비정신에 대한 ‘자리 매김’을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고 싶다. 그를 선비답게 하는 정신은 외침을

32) “國家之事岌岌乎，誠可痛哭，此義士奮發之秋也。下以思之，則賊至城下，屠戮壯丁，哀我生民，措躬何地，室家置之何所，嶺南已然之跡，耳所聞也，目所見也…何不死於國事。況萬一控扼要害，使賊勢沮遏，卽死中救生，此其機也。雪恥復國，此其時也。凡我道內，必有遺漏之丁，散亡之卒。如使有識之士，相與召集勸勵，協力奮起，自成一軍。視賊所向，固守要衝，則上可以爲王師之聲援，下可以保一境之生靈。”(『竹川集』，권4, 「壬辰舉義時檄文」)

당한 위기에서 남보다 더 두터운 ‘愛民·爲民·護民’의 충정을 가지고 의군의 선봉에 서도록 한 그것이 아닐 수 없다.

죽천의 선비정신이 지닌 위상을 이와 같이 추정할 때, 아울러 생각해 야 할 것은 그 시기 선비정신과의 관련 문제이다. 위에서 살핀 것에 근거하면, 16세기 초까지 형성된 선비정신은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가 보인 위민 애국의 희생적인 봉공정신이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상 孔子가 일찍이 드높인 ‘志士型’ 선비가 지닌 정신이다. 조광조를 선비의 이상형처럼 여긴 사실은 이미 그 시기부터 조선의 선비관이 공자의 사고에 따라 지사형을 선비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죽천의 선비정신은 가까이는 그 선비관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조광조 등 사림파가 위민정신 아래 대내의 부조리 제거에 희생을 감수한데 비하여, 죽천은 위민정신 아래 外族의 侵略을 防禦하는 대외적인 여건 교정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점이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면, 죽천 등이 보인 선비정신이 그 후의 호란기나 조선말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義兵精神의 先驅的 意義’를 지니는 것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論語』

『孟子』

『禮記』

朴光前, 『竹川集』

윤사순, 「신채호의 고유사상관」, 『신실학사상론』, 예문서원, 1996.

*Abstract*

## The Confucianist Society of Sixteenth-Century Chosun and the Seonbi Spirit of Juk-cheon Pak Gwang-Jeon

Youn, Sa-so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a of "seonbi" in sixteenth-century Chosun, and the seonbi-like personality and ideals that Juk-cheon Pak Gwang-Jeon embodied.

The seonbi is one of the many idealized human personalities of Confucianism. Categorically placed beneath the "saint" (聖人) that is posited as a perfect, complete being and therefore practically unrealizable, it is a realizable ideal along with the gunja (君子) or the sage (賢人). The prioritized conditions for its realization are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the attainment of virtue through self-cultivation, and the practice of moral values.

In addition to the above mentioned conditions, from early on in the Chosun era, the strict observation of just principles (義理) as a government official--an item of virtue which Confucius mentioned in Chunchu (『春秋』)--was also considered a requisite for the seonbi. By the sixteenth century, the thought was generally spread by the Sarim (士林派) that a rigorous practice of the ideal of serving the public was a precondition of the seonbi status.

One of the most intellectual Neo-Confucianists, Juk-cheon was a possessor of such loft knowledge as to become the royal instructor, and served as an official from the ages 45 to 64, strictly differentiating the

public from the private and focusing on the public service for the people. Such a fact already suffices to entitle him a seonbi at the time.

However, what made him even more of a seonbi is his behavior and attitude regarding the Japanese intrusion (壬辰倭亂), which was after he retired from public office at 67. Despite his status as an ordinary citizen suffering from illnesses of old age, he collected some seven hundred men to organize civilian militia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intruders; during the intrusion of the jeong-yu year (丁酉再亂), he defeated a large number of Japanese intruders as a militia captain. His spirit of serving the public as a seonbi is lightighted by his exemplary sacrifice at a time of the national crisis.

Another activity of his during the same time also deserves our attention. It is the letter of appeal that he composed in order to encourage people to join the militia.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generally thought that they showed efforts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because they were faithful to the king. However, the purpose that he identified in his letter of appeal was to protect the ordinary people and to preserve their well-being. He was a man who stood up against foreign invasions with a patriotic and nationalistic spirit of protecting the people and not just the king. In the sense that his patriotic and nationalistic spirit preceded his loyalty to the king, we may conclude that his spirit of seonbi perhaps took a progressive step beyond its premodern limitation. He is also significant as a spiritual model for later-Chosun militia activities.

**Keyword**

seonbi, idealized human personalities just principle, public service for the people civilian militia



## 16세기 조선 유교사회와 죽전(박광전)의 선비정신

윤 사 순

16세기 조선의 선비관과 竹川(朴光前, 1526-1597)이 지녔던 선비다운 인간상 및 그 정신을 살피는 데 이 고찰의 목적이 있다.

선비는 유교의 많은 이상적 인간상 중의 하나다. 이것은 완전 무결하다고 상정되어 실상 실현 불가능한 聖人 보다 하위에 있는 것으로, 이른바 君子 賢人 등과 비슷한, 실현 가능한 인간상이다. 그 실현 조건으로는 지식의 습득과 수양에 의한 덕성의 함양과 도덕적인 가치의 실천을 가장 중요시한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이러한 조건에 더하여, 공자가 그의 역사서인 『春秋』에 제시한 덕목, 특히 관리로서 행하여야 할 ‘의로운 준칙’(義理)의 철저한 이행을 선비의 필수조건처럼 여겼다. 특히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하는 ‘奉公精神’의 투철함이 선비다운 요건이라는 사고가 ‘士林派’에 의해 일반화되었다.

죽전은 왕자의 스승이 될 정도로 우수한 성리학자의 대열에 드는 높은 지식의 소유자였고, 공과 私를 엄격히 변별하면서 爲民의 公務에 충실한 관리생활을 45세부터 64세 때까지 하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당대의 선비로서 손색없는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그를 더 선비답다고 평하게 된 것은 관계를 떠난 뒤, 67세 때 임진왜란에 대처한 그의 행동이다. 그는 당시 老患으로 고통받던 野人의 신분이었음에도 700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과 싸웠고, 정유재란 때에는 義兵將으로 수많은 왜적을 섬멸하였다. 이렇게 국난타개를 위하여 자기희생의 모범을 보인 데서 그가 지닌 봉공의 선비정신은 빛을 더 발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그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병 모집을 위해 지은 그의 檄文 내용이다. 당시 지식층에서는 대체로 국난타개를 곧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하던 사고가 일반화되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의 격문에 담긴 국난타개의 목표는 일반 ‘인민(生民, 生靈)의 보호와 안녕’을 기하자는 데에 있었다. 임금 개인이 아닌 인민의 보호라는 애민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외족의 침략에 대처한 인물이 바로 그였다. 애민 애족의 정신이 임금에 대한 충성에 앞섰던 점에서, 그의 선비정신은 전근대적 사고로부터 ‘한 발 나아간 성격’까지 띠었다는 판단이 나온다. 그의 이런 정신이 조선 말기 의병정신의 선구적 의의도 지닌다.

주제어

선비, 이상적 인간상, 봉공정신, 의병, 애민정신